

4월 24일  
강신주와  
함께 하는  
해탈 토크  
콘서트  
연

# “해탈은 괴로움서 벗어나는 것 고통 피하지 말고 맞서라”



통도사 원산 스님 등 400여 명 참가  
진로고민·자녀문제 등 질문 쏟아져  
즉문즉답 속에 “고민 타파 됐어요”

“굴레의 얽매임에서 벗어나다.” 해탈을 의미하는 사전적 의미다. 누구나 자유와 행복을 원하지만 해탈로 나아가는 길은 어렵게만 느껴진다. 스스로를 얽매는 수많은 고민은 그 자리에 머물게 하며 주저앉게 한다. 이런 현대인들의 고민을 과감히 던져버리는 자리가 마련됐다.

울산MBC(사장 윤길웅)는 4월 24일 통도사 서운암(주지 동진)에서 ‘강신주와 함께하는 해탈 프로젝트 토크 콘서트’를 개최했다. 이날 콘서트에는 통도사 주지 원산 스님, 서운암 주지 동진 스님을 비롯해 사부대중 400여명이 참석했다.

철학자 강신주 씨는 인터넷방송 팟캐스트를 통해 다양한 곳에서 많은 이들의 고민을 명쾌하고 직설적인 화법으로 풀어내고 있다.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2014년 올해의 책 1위로 꼽힌 <감정수업>을 비롯한 <다상담>시리즈와 <매달린 절벽에서 손을 뗄 수 있는가> 등 30여 권을 저서해 펴냈다.

특히 토크콘서트에는 교무국장 정진 스님이

사회자로 함께해 친근한 말투 등을 통해 일반인들에게 스님은 어렵고 딱딱할 것이란 편견을 깨기도 했다.

통도사 주지 원산 스님은 “해탈이란 말은 ‘풀 해, 벗어날 탈’로 고통과 괴로움에서 벗어나는 것을 의미한다”며 “고행이 아닌 행복한 나날이 되기 위해 노력하자”고 격려했다.

### 다양한 고민 상담 진행돼

토크콘서트에서는 먼저 대학병원 간호사로 일하는 한 여성의 고민이 나왔다. 이 여성은 새로운 진로를 고민하며 현재 무직인 남자친구에게 대한 고민, 유학에 대한 고민 등을 털어냈다.

강신주 씨는 “고민을 한다는 것은 갈림길에 있다는 것”이라며 “갈림길은 고민이라기보다 선택의 기로다. 얻는 것이 있으면 잃는 것도 있다는 것을 명심하고 갈림길에서 지혜로운 선택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정진 스님은 “스스로를 잘 살피라. 직장도 남자친구도 그만두고 쉬고 싶다는 생각이 들면 쉬고 선택한 바에 집중하라”고 조언했다.

이어 결혼 후 시부모의 종교생활 강요로 인한 어려움을 겪는 한 여성의 사연도 공개됐다. 이 여성은 “기독교인이지만 시부모님 강요로 먼 거리에 있는 시댁 근처의 교회에 출석하고 있다”며 “문제는 남편의 직장 문제로 시댁에 자신의 의사와 상관없이 들어가도록 강요받고

있다”고 고민을 털어냈다.

이에 대해 강신주 씨와 정진 스님은 문제 해결을 위해 결단력을 보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신주 씨는 “경제적으로 여건이 된다면 ‘헤어지라’며 “이런 여건 하에 그동안 스스로를 지키는 법을 챙겨놓지 않은 자신을 돌아봐야 한다. 스스로 지키는 능력이 없다면 시댁에 들어가 살 수밖에 없다”고 진단했다. 강 씨는 이어 “시부모들은 화목한 기독교가정을 지키고자 할 뿐으로, 며느리의 입장을 고려하고 있지 않다. 경제적 능력을 갖추고 자신의 입장을 지켜내야 한다”고 말했다.

정진 스님은 “매 순간이 선택의 기로가 있다”며 “어떤 방향이든 결정하고 움직이고 나면 마음이 편안해 지기 때문에 빠른 결정과 함께 과감한 행동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이와 함께 현대사회에서 일반인으로서 무소유를 어떻게 견지할 것인지에 대한 질문 등이 나왔다.

### 가족 간의 소통 문제 나와

이어 즉석 질문 시간도 마련됐다. 울산에서 온 서경자(56)씨는 “24살 아들이 있는데 대화와 소통이 어렵다”며 고민을 말했다.

이에 대해 정진 스님과 강신주 박사는 “포기하지 마라. 대부분의 부모들은 소통이 잘 된다는 기준이 자신의 말을 잘 따른다는 것을

의미한다. 하지만 자녀가 성장 한 후에도 그렇다면 문제가 있는 것이다. 자녀가 말을 안 듣고 그러면 많이 성장해서 그렇구나 하고 알아야 한다. 입을 닫고 들어라”고 조언했다.

서경자 씨는 “말을 좀 줄이려 하겠는데 아들 말을 좀 더 들어야겠다고 느꼈다. 돌직구로 말씀 하셨지만 오히려 속이 시원하다”고 소감을 말했다.

다양한 질문들은 그 자리에 참석한 많은 이들의 공감도 이끌어냈다.

부산에서 온 김현희(가명·38)씨는 “자신도 어린 자녀가 둘이 있어서 기독교 가정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연이 특히 안타까웠다. 엄마가 그렇게 약한데 아기를 어떻게 키우겠느냐 한발 더 내딛어야 한다는 말은 정말 마음에 와 닿았다. 유익한 시간이었다”고 말했다.

토크 콘서트를 마무리 하면서 정진 스님은 “고민은 모든 생명체가 가지는 것이지만 고민 해결은 선택인거 같다. 머물러 있는 것은 방법이 아니다. 선택해서 나아가라”고 조언했다.

강신주 박사는 “삶에 대해 용기만 있으면 고민은 없는 거 같다. 고민의 반대말은 용기라고 생각한다. 머리가 좋으면 자기 합리화하고 비겁하게 만든다. 정면 돌파해라.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산을 타는 것과 비슷하다. 한발자국 내딛는 용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통도사 서운암·하성미 기자

### 강신주의 해탈 프로젝트는?

울산MBC 특별기획으로 마련된 ‘강신주의 해탈 프로젝트’는 다큐멘터리 3부작과 토크콘서트 1부작으로 진행됐다. 인생의 굴곡을 빼앗은 봄·여름·가을·겨울 사계절이라는 형식을 빌려 보통의 사람들이 일상에서 품고 있는 고민을 해탈로 승화시킬 수 있도록 한 기획이다.

계절별 촬영 중 ‘제1부 여름편 무소의 뿔처럼 혼자서 가라’는 불처럼 뜨거운 여름을 의미한다. 여름을 빼앗은 20대 청춘들과의 만남으로 진행됐다. 학업과 진로, 불안한 미래에 대한 두려움으로 가득한 대한민국의 20대 청춘들과 개인적인 가정사와 정체성을 찾고자 하는 청춘들의 이야기와 함께 하는 시간이다.

‘제2부 가을, 당신의 맨얼굴을 보았는가?’에서는 자신의 진짜 참모습을 찾고자 하는 30~40대 여성들과의 대화다. 가을의 통도사에서 진행됐으며 더불어 그동안 공개되지 않았던 통도사의 조계암, 극락암의 선원과 무문관을 공개한다.

‘제3부 겨울, 매달린 절벽에서 손을 뗄 수 있는가?’는 통도사에서 최초로 진행된 단기 출가학교 프로그램이다. 암환자, 교장선생님, 은행원, 성폭력 피해자 등 각자의 사연을 품고 통도사를 찾은 출연자들이 참가했다.

‘제4부 봄, 감정의 주인으로 서다’는 프로그램의 마무리이자 모두의 새로운 출발을 염원하는 계절인 봄을 주제로 통도사 서운암에서 진행되는 토크 콘서트 형식으로 진행됐다.

방송은 5월 16일까지 매주 토요일 밤 11시05분 울산 MBC에서 방송된다. 토크 콘서트는 5월 16일에 방송되며 다른 지역에서는 울산 MBC 홈페이지를 통해 다시보기로 볼 수 있다.



울산MBC가 개최한 해탈 프로젝트인 ‘서운암’ 토크 콘서트에는 400여명이 참석했다.



이날 토크콘서트에는 교무국장 정진 스님을 비롯해 원산 스님 등이 참여해 대중들과 소통했다.



참석자들이 토크콘서트를 지켜보며 박장대소 하고 있다.

지금까지 볼 수 없었던 부처님의 고귀하고 영롱한 사리사진을 친견하여 세세생생 복덕을 누리세요

- 국내 최초 부처님 진신사리집 출간 -

붓다여! 붓다여!  
世尊眞身舍利

泥蓮河의 부활이여!



부처님 사리는 수정같이 맑고 무지개빛 영롱한 빛깔과 함께 붉은색, 파란색, 초록색, 노란색, 흰색, 황금색 등 오색영롱한 사리를 친견하실 수 있습니다.

1. 부처님의 진신사리는 부처님과 동일체로 생각하였고 가장 진지하고 경건한 숭배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2. 불자님가정에 진신사리집을 모셔놓고 기도 하시기 되면 엄청난 환희심을 느낄 수 있습니다.

• 크기 : 30cm X 30cm, 166면, 총천연색 컬러 사진집 • 세계적으로 공인된 부처님 사리 증명서 첨부  
• 정가 : 280,000원 구입문의 : 055-388-0919 총 무 : 010-7283-0089

若見如來舍利 卽是見佛

부처님의 사리를 보는 것은 즉 부처님을 만나는 것이다  
(대만야열반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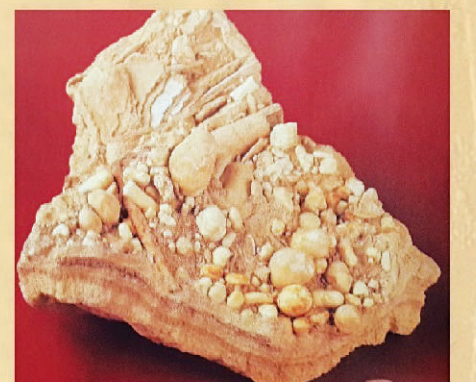


부처님 진신사리



황금사리

부처님의 혈(血) 사리로서 황금색의 장엄하고 화려한 사리



사리불사리의 아라한사리 모음

(진신사리친견법회에서 촬영된 아주 고귀하고 장엄한 사리사진입니다.)

3. 부처님의 사리집을 소장하는 순간부터 여러분과 가족의 운명이 바뀔 수도 있습니다.
4. 부처님의 진신사리의 진가(眞價)를 구별할 수 있는 지혜의 눈을 얻으실 수 있습니다.
5. 사찰에서 의식시 법당에 모셔놓고 불공을 드리면 무량한 가피(加被)를 보실 수 있습니다.

보급처 : 세계불교문화올림픽조직위원회 계좌번호 : 농협 351 - 0793 - 0193-683